가정신앙에 대한 재고

-가정신앙의 범주, 신, 그리고 의례-

최 종 성*

目 次

Ⅰ. 서론
Ⅱ. 가정신앙의 개념과 범주
Ⅲ. 집안의 가정신앙
Ⅳ. 집밖의 가정신앙
Ⅴ. 가정의례
Ⅵ. 결론

Ⅰ. 서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긴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중 있는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만큼, 종교적인 삶의 흔적도 가정에 남길 수밖에 없다. 가정을 무시한 종교문화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특정의 제도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종교들 가령,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등에서도 사원이나 국가차원에 대비되는 가정의 종교문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가정신앙이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고 민속종교의 범주에서 그것을 정리하기란 여전히 까다롭다.

무엇을 일러 가정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한국 가정신앙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신앙을 둘러싼 개념과 정의의 문제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가신신앙'이니, '가택신앙'이니, '집지킴이신앙'이니 하는 용어들이 가정신앙과 더불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용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개념적 차별성을 고려하여 신앙의 범주를 재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화와 분류는 다양한 가정신앙의 면면을 담아내고 그것을 이해하는 출발일 수밖에 없다.

어떤 신들이 가정신앙의 판테온을 구성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정신앙에서 주목받는 신들은 집안에도 있고, 집밖에도 있다. 먼저, 집안의 가신(家神)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정신앙은 가옥 공간과 구조에 자리잡고 있는 주요한 가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성주, 조상, 삼신, 조왕, 터주, 업, 우물, 측신 등과 같은 가신과 관련된 신화, 신체(神體), 의례 등이 가정신앙의 서술에서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신은 전통시대에 민속에서 의식했던 집안의 주요한 공간구조와 자리배치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다음으로 집밖의 신(산신, 용신, 풍신)에 대한 관념과 의례를 통해 확인되는 가정신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안에 위치한 가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집밖에서 행해지는 가정신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마을신앙과 관련된 가정신앙이나 산간지역과 하천지역에서 나타나는 초공간적인 가정신앙들은 공간에 억매이지 않는 가족에 대한 염려와 희망을 잘 보여준다. 집밖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신앙에 대한 민속학적 보고가 점차 축적되면서 가정신앙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고를 환기시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가옥의 구조가 변모하면서 가정신앙이 약화되고, 세계종교의 전래를 통해 가정신앙이 대체되고, 출생과 죽음과 같은 중요한 의례적인 고비를 병원이 전담하면서 가정신앙은 위축되어 간다. 그러한 변화를 막을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되는 것은 도시 속에서의 가정신앙, 종교혼합적인 가정신앙, 그리고 집밖의 가정신앙 등에 대한 세심한 주목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정신앙이 여전히 민속종교 현상으로 목도되거나 희미하게 회고되는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의 잔존 속에 혹은 간헐적으로 조사자의 눈에 포착된 민속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종교적 열망을 읽어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가정신앙의 범주와 신, 그리고 의례를 되새겨 보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Ⅱ. 가정신앙의 개념과 범주

한국인들은 가정에서 생사화복의 온갖 문제들과 직면하면서 특유의 종교문화를 다양하게 구축해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정신앙은 제도종교(official religion)와 구분되고 마을신앙과 대별되는 민속종교(popular religion)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제도화된 세계종교의 가정신앙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민속종교에 기반을 둔 가정신앙의 형태도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양자가 느슨하게 어우러진 제3의 신앙 형태도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민속종교에 기반을 둔 가정신앙의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가정신앙은 비제도적인 민속종교이면서도 마을의 공동체 신앙(communal folk religion)과 대별되는 가족 구성원 중심의 민속신앙(household and familial folk religion)이라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가정신앙'이라는 말이 민속학계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1], 그간 학계에서는 '가신신앙', '가택신앙', '집지킴이신앙' 등의 용어를 흔히 사용해 왔다. 현상을 서술하는 입장에서는 용어의 선택이 곤혹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 용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앙의 의미는 오히려 대동소이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해도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리, 그리고 가업의 번영과 안녕을 희구하는 신앙적 의미를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

1)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근에 2권의 두툼한 책으로 발간된 김명자 외, 『한국의 가정신앙』 상·하, 민속원, 2005년을 참조하면 이를 쉽게 실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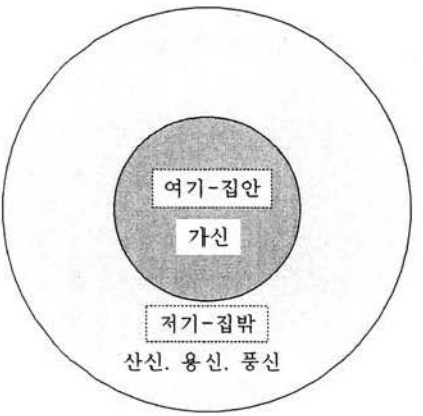
기 때문이다. 용어의 혼용에 비해 의미의 혼동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정신앙의 현상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면서 용어 간의 특수성과 차별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용어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상호 간의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식한 후에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선적으로 '가정신앙', '가신신앙', '가택신앙', '집지킴이신앙' 등에는 가옥(house)이라는 공간성과 가족(family)의 복리(福利)라는 목적성이 개입되어 있다. 먼저, 가옥은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공간이면서도 특정의 공간구조가 특정한 직능신의 제장으로 성화되는 신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공간구조를 지칭하는 집이나 가택(家宅), 그리고 신성화된 공간구조인 가신(家神)은 모두 가옥의 공간성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신신앙'이나 '가택신앙' 혹은 '집지킴이신앙'은 가옥의 공간에 조응하는 직능신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는 점에서 가옥의 공간지향적인 개념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한편, 가족은 인간의 기초적인 사회단위로서 그 정체성은 반드시 가옥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공간을 넘나들며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정체성을 신앙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은 성화되고 정화된 가옥구조 안일 수도 있고 그 밖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용어에 비해 '가정신앙'이라는 말은 가옥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가족의 안녕과 복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지향적인 개념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가정신앙'은 가옥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가옥의 공간에서 자유로운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물론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일상적인 삶이 대개 집 안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시대에는 가족의 신앙적 정체성이 대개 가옥 공간에 한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옥이라는 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가정신앙도 민속에서 누차 확인된 바 있다.

요즘 애용되고 있는 가정신앙이라는 용어는 가옥의 공간성보다는 가족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간지향적인 개념보다는 목적지향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집안과 집밖의 신앙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결국 가정신앙은, 그림 1에서 보듯

이, 가옥 공간과 관련된 가신신앙을 중심 기반으로 하되〔집안신앙〕, 그 영역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가족의 제재초복을 위한 신앙〔집밖신앙〕을 포괄한다. 따라서 가정신앙은 집 안의 특정 공간(here)에서, 집 밖의 특정 공간(there)에서, 그리고 집 안팎의 특정 공간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anywhere)에서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여기-집안"의 영역으로서 대개 '가신신앙', '가택신앙', '집지킴이신앙'이 지칭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집터와 울타리 안에서 가신을 중심으로 하는 집안의 신앙이다. 두 번째 범주는 "저기-집밖"의 영역으로서 주로 산간지역과 하천지역의 마을신앙과 관련되며, 산신, 용신, 풍신이 중심이 되는 집밖의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족의 안녕을 염원하는 일상의 소박한 신앙을 세번째의 범주로 설정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형일 뿐, 한국 가정신앙의 신과 의례는 주로 여기-집안과 저기-집밖에서 두루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가정신앙의 범주

Ⅲ. 집안의 가정신앙

집안에서 가정을 수호하는 신을 흔히 가신이라고 한다. 가신은 집안의 주요한 공간구조와 자리배치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2] 가령, 성주, 조상, 삼신, 조왕, 터주, 업, 우물, 문신, 측신 등은 대청마루, 안방, 부엌, 마당, 뒤곁, 우물, 문, 화장실 등과 같은 특정 가옥구조나 공간 영역에서 단지나 바가지, 백지나 한지, 북어 등과 같은 특정의 신체로 표현된다. 이러한 가신들은 한국인들이 가정의 공간과 영역을 신성화한, 즉 삶의 정주 공간을 성화시킨 독특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가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청마루에서부터 안방과 부엌을 거쳐, 뜰에 이르고 문을 지나 측간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적 추이를 따라 가신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신앙을 추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신들 간의 위계와 역학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신 간의 지역적 편차도 가늠할 수 있다.

1. 대청마루 - 성주

세대수와는 관계없이 독립된 가옥마다 하나의 성주신이 존재한다. '성주' 혹은 '성주대감'으로 불리는 성주신은 가정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가신으로서 집안에서 가장 중시되는 최고의 신이다.[3] 성주신은 남자 가장〔坐主〕과 관련된 신격이라는 점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가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집안의 수호신이다. 집안의 최고신의 위치에 걸맞게 집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대청마루에 자리잡고 있는 신이 바로 성주신이다. 성주신화에 따르면, 천계(천궁대왕)에 본을 둔 성주가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에 솔씨로 출현한다. 제비원의 솔씨에서 자라난 소나무는 집을 짓고 대들보를 세우는 주요 재

---

2) 집의 공간배치와 가신의 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김명자, 「집과 가족을 일체화하는 가정신앙」, 『비교민속학』 32, 비교민속학회, 2006. 참조.

3) 일찍이 1849년경에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東國歲時記』(十月, 月內) 에는 성주가 '成造'로 표기되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巫黨來歷』에서는 '成造巨里'라는 한자식 표현과 함께 '셩쥬푸리'라는 속칭이 실려 있다.

료로서 모든 가정에 좌정한다. 집을 짓는 행위는 성주신이 하늘로부터 땅을 거쳐 집안의 대청에 좌정하는 과정을 신성화하는 것이며, 집은 그것 자체로 신성한 소우주가 된다. 그중에서도 성주신이 좌정한 대청마루는 출산과 죽음이 이루어지는 부정과 오염의 실내공간이 아니라 제사와 혼례와 같은 성스러운 의례가 거행되는 신성 공간이다.

성주신의 신체(神體)는 지방에 따라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나 대개 '성주독', '부루독', '성주단지', '부르단지' 등으로 불리우는 단지의 형태와, 단순히 문설주 위나 대들보에 붙여 있거나 걸려 있는 한지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성주단지 안에는 새로 추수한 벼나 보리 혹은 새로 찧은 쌀을 봉안하며, 묵은 쌀로 밥이나 떡을 해먹는 것이 보통이다. 쌀은 그것 자체로 성주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성주신에게 해마다 새로이 바쳐지는 공물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띤다.

성주는 가내의 평안과 안녕을 보장받기 위해 정초에 행하는 안택고사에서 의례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 주요한 절기(삼짓날, 단오, 유두, 백중, 추석, 동지, 섣달그믐 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모셔지지만, 일반적으로 백시루와 메, 술, 과일 등이 기본적인 제물로 바쳐진다. 성주신이 좌정한 공간을 성화하고 때에 맞춰 정성스런 의례를 거행하면 가정에 복덕이 넘치지만, 성주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성주를 모신 공간을 부정하게 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어서 불운과 질병이 이어진다고 믿는다.

2. 안방 - 조상/삼신

대청마루를 거쳐 옛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간 보금자리인 안방으로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가정의 평화와 풍요를 약속하는 조상(조령)과 생명과 성장을 주관하는 삼신을 만나게 된다. 대청마루가 가옥의 지형적 중심에 놓여 있다면, 안방은 생명의 연속성과 관련된 시간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상은 단지나 주머니 혹은 특정의 종이 형태로 시렁 위나 안방 벽에 안치된다. 먼저, 단지의 형태로 봉안된 신의 명칭은 지역마다

다양하여, '조상단지', '귀신단지', '귀신토방구리', '불단지', '제석단지', '세존단지', '부루단지', '제석오가리' 등으로 불리운다. 조상단지의 경우에는 단지에 쌀을 넣고 한지로 입구를 봉하여 시렁 위에 안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단지 안에 봉안되었던 묵은 쌀은 추수 후에 햇곡으로 바꾸어 넣으며, 묵은 쌀로 밥이나 떡을 만들어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쌀의 교체는 농경사회에서 조상신에게 천신(薦新)하는 것과 관련되며, 신의 신체이자 신이 흠향한 묵은쌀을 가족끼리 나누는 것은 음복의 의미가 실린 성스러운 공동식사(holy communal meal)의 소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지만 대개 정월보름, 유두, 칠석, 추석 등과 같은 절기나 조상의 기일에 의례를 거행한다.

두 번째로 주머니의 형태로 봉안된 조상신은 '제석주머니'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대개 베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쌀을 담아 안방 벽에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묵은 쌀을 햅쌀로 바꾸어 봉안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간혹 어촌지역에서 '귀신종이'라 불리는 종이로 만든 조상의 신체를 안방의 벽에 붙여 봉안하는 형태도 종종 발견된다.[4] 조상의 신위를 한지에 기록하여 벽에 걸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 시렁 위에 안치하기도 한다.

조령 이외에 안방에 모셔신 가신으로서, 아이를 점지하고 출산과 아이의 성장을 도와준다고 믿는 삼신을 들 수가 있다. 삼신은 흔히 '삼신단지' 혹은 '삼신바가지'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조령과 마찬가지로 단지나 바가지에 쌀을 담고 위에 백지로 덮은 뒤 금줄(왼새끼줄)로 동여매어 안방 시렁에 모신다. 이 이외에 지역에 따라서는 '삼신주머니'라 하여 베로 만든 두 주머니에 쌀과 미역을 각각 넣어 두는 경우도 있다. 삼신의 신체에 담겨졌던 쌀이나 곡식도 역시 햇곡으로 바꾸어 주며 묵은 것으로 밥을 지어 가족끼리만 나눠 먹는다.

안방에 모셔지는 삼신단지는 제석단지와도 신화적인 친연성을 갖

---

4) 이른바 '귀신종이모시기'는 어촌마을에서 직계 조령을 한지로 만들어 봉안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경숙, 「부산지역의 가정신앙 -귀신종이 모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456-493쪽. 참조.

는다. 즉 신화주인공인 당금애기가 삼신이 되고 그가 낳은 세 아들이 제석신이 된다는 당금애기신화에서 모자(母子) 간의 친화성이 확인된다. 생명이 비롯되고 생명이 다하는 안방에서 생명의 근원인 조상신과 생명을 주관하는 삼신이 신앙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삼신은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개 아기의 출산후(3, 7, 21일) 혹은 주요 절기에 여성들에 의해 신앙된다. 생명과 건강의 복을 내려준다고 여겨지는 삼신일지라도 정성과 관심이 부족하면 탈이 날 수 있다. 간혹 강원도 산간지역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삼신에 대한 신앙에 정성이 부족하거나 삼신의 신체를 잘 못 다루면 삼신이 집을 나가 탈이 나게 된다.[5] 삼신이 탈을 내면 아이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버린 삼신을 정성껏 불러들이기 위한 간단한 의례(비손)가 행해지기도 한다.

3. 부엌 - 조왕

안방과 연이어 있으면서 가족에게 온기와 식기를 해결해주는 부엌은 불을 다루고 음식을 만드는 주부의 공간으로서, '조왕' 혹은 '조왕대감', '조왕할매' 등으로 불리는 부엌의 신이 거처하는 곳이다. 대청마루의 성주신이 가장인 대주의 신이라면 부엌의 조왕신은 주부의 신으로 대별된다. 대개 조왕신을 위해서는 부뚜막 뒤의 벽이나 솥 사이에 작은 대를 마련하고 물그릇을 얹어 놓거나 부뚜막 벽에 창호지와 명태를 걸어 놓기도 한다. 매해 묵은 쌀을 바꿔주는 성주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와는 달리, 주부들은 조왕신에게 매일 깨끗한 물을 갈아주며, 가족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객지에 나가 밥 먹고 사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부엌은 불을 다루는 정화의 공간이며 정한 물이 바쳐지는 정결한 공간이다. 정갈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면서, 일상의 때를 씻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목욕실이 있는 곳도 부엌이었다. 따라서 배설과 오염의 상징인 측간과는 늘 절대적으로도 관념적으로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제주도의 무속신화(문전본풀이)에서

5) 서정화, 「공간 분화에 따른 가정신앙 의례」,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105-112쪽. 참조.

는 가난한 본처와 악덕한 첩이 각각 조왕신과 측신으로 설화되고 있을 정도로 부엌(조왕)의 정결함과 화장실(측신)의 부정함이 대비되고 있다.[6] 그러나 현대의 주거공간에서는 주방과 화장실이 지척 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과 용변이 모두 한 곳(화장실)에서 해결되고 있어 전통적인 대조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 뜰 - 터주

대청마루, 안방, 부엌을 거쳐나오면 가옥을 안고 있으면서 집을 떠받치고 있는 터주가 있는 뜰에 이른다. 터주는 지신(地神)으로서 집터를 지키는 신이다. 터주는 주로 집안의 가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뜰 중에서도 주로 뒤쪽의 뜰(뒤꼍)에 좌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뒤뜰 장독대 곁에 설치된 '터주가리'나 '터주막이'가 터주신의 신체라 할 수 있다. 대개 터주단지에 벼나 곡식의 낟알, 그리고 동전 등을 넣은 후 천을 덮고 원뿔 모양의 주저리를 씌운 것이 터주가리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짚으로 만든 주저리는 가을에 추수한 후에 새로 만들어 씌우고 헌 것은 불에 태웠다. 지역에 따라서 '업(가리)', '철륭', '용단지'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뒤뜰 신앙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령, 재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 업신은 터주가리 형태와 유사하게 모셔지지만 터주가리의 주저리가 매년 가을에 교체되는 것에 비해, 업가리의 그것은 재물의 축적을 보장하기 위해 새것으로 교체되지 않고 기존의 것 위에 새것이 덧 씌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가옥 뒤쪽에 좌정한 터주신이 주목받는 것은 '천신→산신→가신'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소우주화 과정에서 집 뒤의 산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뒤꼍이 그 시발을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대청마루가 가옥의 중심으로서 주목되고 안방이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과 시간의 중심으로, 부엌이 정화와 정결의 중심으로 중시된다면, 터(뒤꼍)는 하늘과 산과 마을과 집을 이어주는 우주적 소통의 중심지로 간주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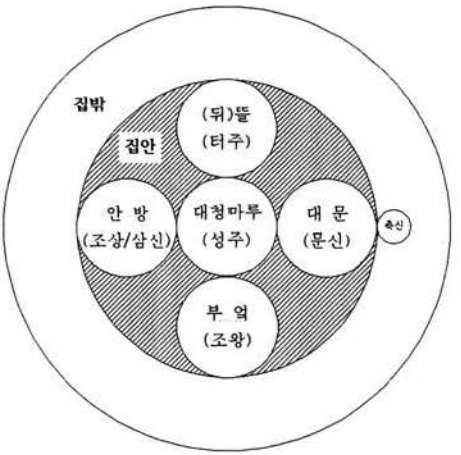
6) 이에 대해서는 김명자, 「무속신화를 통해 본 조왕신과 측신의 성격」,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177-207쪽을 참조할 만하며,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정연학, 「중국의 가정신앙-조왕신과 뒷간신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정신앙』 상, 민속원, 2005, 363-397쪽을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공간이다.

5. 문과 측간 - 문신/측신

문은 집안과 밖을 경계짓는 곳으로서 밖의 부정과 오염이 집안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제어하는 수문신(守門神)의 공간이다. 터주가 하늘과 산으로부터 집안을 매개시키는 우주적인 소통의 공간이라면 문은 다른 집과 이웃으로부터 집안을 연결시키는 인간적인 소통의 공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늘 따라다니는 부정과 오염, 그리고 잡귀를 제대로 걸러내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문 밖에 멀리 떨어져 있는 측간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집 밖의 공간이지만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옥의 한 공간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돈집과 측간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이 암시하듯이 측간은 늘 부정적인 대접을 받아 왔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물 및 불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신성공간인 부엌과 배설 및 오염의 공간인 측간 사이는 신화에서 원수지간과도 같은 처첩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그 성과 속의 관념적인 이격을 보장해주는 공간이 바로 대문이다.



〔그림 3〕 가옥과 가신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그림 2의 빗금친 부분, 즉 여기-집안에 해당되는 가정신앙이었다. 가옥구조와 가신의 짝패는 공간적으로 대청마루(성주)에서 측간(측신)에 이르는 중심-주변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집안 곳곳이 의미론적으로 성화된 기능적 중심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청(성주)은 소우주인 가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신성 공간으로서 가정의례의 중심지이며, 안방(조상/삼신)은 생사의 부정으로 오염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교대와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중심지이고, 부엌(조왕)은 부정과 오염을 씻어내는 정결의 중심지이며, 뒤꼍(터주)은 집밖 너머(하늘)의 천신과 집밖(산)의 산신이 집안(터)의 가신으로 연결되는 우주론적 소통의 중심지이고, 문(문신)은 집과 집, 또는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는 인간적 소통의 중심지이다.

Ⅳ. 집밖의 가정신앙

지금까지 가신을 중심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신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 관심을 저기-집밖으로 돌릴 차례이다. 흔히 가정신앙이 집안의 신앙으로만 간주되기 쉬우나 집밖에서 거행되는 가정신앙의 형태가 민속에서 종종 보고되고 있다. 가신신앙이나 가택신앙의 범주를 뛰어 넘는, 따라서 가정신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요구하게 하는, 집밖의 가정신앙이 산신, 용신, 그리고 풍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로 산간지역과 하천지역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넘나들며 거행되는 가족을 위한 크고 작은 의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앞의 그림2의 집밖 공간에서는 집안의 가신을 넘어 산신, 용신(용왕), 풍신(영등) 등으로 신앙대상이 확장되기도 하고, 집안의 가신이 집밖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우리는 몇몇 사례를 통해, 가옥이라는 공간에 억매이지 않은 초공간적인 가정신앙, 즉 집밖의 가정신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산간과 하천지역의 독특한 가정신앙 이외에도 집단적인 마을신앙 속에 가정신앙의 형태가 부속되거나 병렬되는 사례도 있다. 가령, 마을 단위의 산신제를 거행할 때에 풍물패가 가

가호호를 방문하며 제재초복을 빌어주는 '지신밟기'라든지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낸 후에 집안 별로 산신에게 축원하는 '마짐시루'(충청)가 그 예일 것이다.[7] 여기에서는 산간지역과 하천지역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산간의 가정신앙

강원도 동해안 산간지역에서는 '산메기'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민간신앙이 전승되고 있다.[8] 산메기의 의미가 '산멕이기'(봉헌)일 수도 있고 '산막이'(제액)일 수도 있으나 '논멕이기'의 예에서 보이듯이 산메기는 산에게 뭔가를 베풀며 대접하는 성격의 의례라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산메기에 산신은 물론 조상신과 삼신이 등장하여 가족과 가축에 대한 기원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가족의 복리가 가택신이 아닌 산신에게 요청되기도 하고, 가신의 전형인 조상신(세준/말명)과 삼신이 집밖에서 신앙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산메기는 주로 삼월삼짓날이나 단오에 행하거나 별도로 봄 가을에 날을 가려 거행하기도 한다. 무당이나 복재(卜者)와 같은 종교전문가가 집전하는 산메기는 문중이나 마을단위로 거행되는 공동체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무당굿이든 복재의 독경의례이든 간에 산신과 더불어 조상신을 모시고 축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러한 산메기가 집단적인 의례이면서도 가정신앙의 성격을 띠는 것은 집에 모셔두었던 기존의 '산'을 태우고 새로이 '산'을 집안에 좌정시키는 '산모시기'를 가정단위로 거행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특정의 종교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마다 가장이나 주부가 특정한 나무나 암석 앞에 간단한 제물을 바치고 가족을 위한 축원기도를 올

---

7) 마을신앙과 관련된 가정신앙에 대해서는 이필영, 「충남지역 가정신앙의 제 유형과 성격」, 『샤머니즘 연구』 3, 한국샤머니즘학회, 2000, 44-46쪽. 참조.

8) 산메기에 대해서는 장정룡,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 김진순, 「산메기 현지 연구 -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 서정화, 「영동 산간지역의 가정신앙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장식, 「산메기의 특징과 가정신앙적 성격」,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참조.

린다. 이때에도 집에 모셔두었던 산을 가지고 와 태우고 집안에 새로운 산을 모신다.

산메기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신은 '산'이다. 대개 집안마다 산에 있는 특정의 나무를 선정해 산으로 모시고 있으며, 집안에도 '산'을 모시고 와 벽에 붙여 놓는데, 대개 산신이나 산신으로 간주되는 호랑이의 신체로 이해되고 있다. 대개 '산'이 가축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고 여겨져 외양간 벽에 모셔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번째로 산메기에서는 '산' 이외에 조상신이 주목된다. 산메기를 하기 전에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기도 하고, 산메기 의례에서 산신과 더불어 조상신에게 축원을 올리기도 한다. 삼척의 산간지역에서는 산메기 때에 조상단지(말명단지/세준단지)에 넣었던 묵은 쌀로 떡과 메를 지어 의례에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관심을 끄는 신이 바로 삼신이다. 삼신은 조상신과 마찬가지로 산메기에서 축원을 받는 대상신이다. 뿐만 아니라 삼신은 산메기터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산메기터에 삼신당이 자리잡고 있어 생명의 탄생을 산에 와서 기원하기도 한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산으로부터 삼신을 집안으로 모셔오고, 아이가 다 자라 10살이 된 이후에는 집안에 모셔두었던 삼신바가지를 산메기터에 묻음으로써 삼신을 산으로 귀환시킨다.

산메기를 통해, 가정의 안녕과 축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신앙이 집밖에서 거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집안의 가축과 가족을 위해 집밖의 신(산신)이 집안으로 좌정되기도 하고, 집안의 신(조상신, 삼신)이 집밖으로 초대되기도 하였다.

2. 강변의 가정신앙

산간지역의 산메기가 산신을 중심으로 한 가정신앙이라면 하천지역의 가정신앙은 용신(용왕)과 풍신(영등)이 중심이 된다.[9] 정월대보름에 거행하는 '용알뜨기'와 '어부심'이 용신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2월 초에 영등을 맞이하는 의례는 풍신과 관련된다.

---

9) 김준기, 「한강유역의 가정신앙」,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134-162쪽; 이성희, 「남한강 유역의 여성 가정신앙 어부심의 의미」,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325-350쪽. 참조.

먼저, 바닷가나 강가 혹은 냇가에서 용신이나 용왕에게 가정의 평안을 비는 가정신앙이 전승되고 있다. 우선, 한강지역에서 정월대보름 이른 새벽에 강에 나가 물을 떠와 그 물로 밥을 지어먹는 용알뜨기(용물뜨기) 의식이 눈에 띤다. 19세기 초(1819년)에 김매순이 서울지역의 세시풍속을 기록한『열양세시기』에도 대보름에 행하는 의식으로 '용알뜨기'가 소개되고 있다.

> 이른 새벽에 정화수 한 그릇을 길어오는데, 이를 일러 용알을 뜬다고 한다.[10]

용물을 떠와 밥을 해먹는 행위는 가족의 건강과 무탈을 위해 용왕 혹은 용신을 집안에 모셔와 신의 위력을 가족들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용알뜨기는 가정의 무병과 평안을 보장받기 위해 가옥의 공간을 넘어서는 가정신앙이라 할 수 있다.

용알뜨기 이외에 대보름에 거행되는 또 하나의 의식이 어부심이다. 어부심은 '용왕먹이기', '어부식', '어부슴', '용왕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정월 대보름 새벽에 소지에 싼 찰밥을 강물에 던지며 가족을 위해 비는 의식이 바로 어부심이다. 김매순의『열양세시기』에 정월 대보름 이른 새벽에 정결한 종이에 백반을 싸서 침수시키는 의식으로서 어부시(魚鳧施)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부심에 다름 아닌 것이다.[11] 용알뜨기가 용신을 집안 사람에게 끌어들이는 떠오기라면, 어부심은 인간의 정성을 용신에게 내어주는 퍼주기라는 점에서 반대되기도 한다.

한편, 2월 초하루에 비바람을 일으키는 영등을 맞이하는 의례도 주목할 만하다. '영등신' 혹은 '영등할매'나 '이월할머니'는 본래 가신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2월초에 한시적으로 집안에 초대된다. 가령 한강지역에서는 뒤꼍 장독대에 모셔지지만, 섬진강지역에서는 솔가지의 형태로 부엌에 모셔지는 사례[12]가 확인되고 있다.

---

10) 金邁淳,『洌陽歲時記』, 上元. "凌晨 汲井華水一器 謂之撈龍子".

11) 金邁淳,『洌陽歲時記』, 上元. "淨紙裹白飯投水 謂之魚鳧施".

12) 서해숙,「섬진강유역 가정신앙의 양상과 의미」,『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

Ⅴ. 가정의례

우리는 정기의례와 비정기적인 위기의례를 통해 의례화된 가정신앙을 만난다.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안택과 고사와 같은 일상적인 의례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재앙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는 위기의례 혹은 재앙의례(ritual of affliction)는 가정신앙을 대표하는 의례로 정착하였다. 규모와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가정의례일수록 특정의 의례전문가가 요청된다. 안택, 치병, 천도 등은 가정에서 중시되는 의례의 영역으로서 무당이나 맹인 등의 종교전문가가 동원되기 마련이었고, 특히 안택보다는 치병이, 치병보다는 천도가 더욱더 의례전문가의 손을 필요로 하였다. 그만큼 일상의 축원보다는 질병의 위기를, 질병보다는 죽음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안택고사는 집안의 평안과 재수를 비는 정기적인 가정의례이다. 대개 연초인 정월이나 시월 상달에 많이 지내며, 집안에 따라서는 특정한 날을 받아 정기적으로 거행하기도 한다.[13] 무당이나 맹인을 초대하여 안택굿을 하거나 안택경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집안의 주부가 주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주를 모시는 것을 안택이라 하고 성주 올린 날을 안택일로 삼는다는 점에서, 안택의 중심은 성주신이라 할 수 있다. 성주가 안택의 중심이긴 하지만 성주 이외에도 조왕, 터주, 조상신, 삼신 등의 가신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축원을 한다. 성주신과 가신을 잘 모시지 않거나 신체를 함부로 대할 때 집안 식구 중에 병을 앓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일상적인 정기의례가 제대로 거행되지 않을 때에는 탈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급기야 새로운 의례가 요청될 수밖에 없다.

둘째, 비정기적인 가정의례 중에 치병의례가 있다. 안택고사가 가

원, 2005, 218-221쪽. 참조.

13) 필자의 집안(강원도 춘성군)에서는 음력 2월 1일 저녁 무렵에 시루떡을 마루(성주), 장독대(터주), 부엌(조왕), 외양간(우마신), 대문(문신) 등에 바치고 모친이 축원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시루떡은 이웃에게 나누어 먹었다. 안택일은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월의 초하루로 잡고 날을 보는 사람에게 확인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신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의례라면, 치병의례는 병든 환자의 병인(病因)을 파악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비정기적인 가정신앙이다. 집안에서 행해지는 치병의례를 가정신앙의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 예가 많지 않으나 이필영은 충청지방의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의 사례를 통해 병인(病因)을 판단하고 객귀(뜬귀)를 물리는 가정의례의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14] 무당이 주관하는 병굿이나 맹인이 독경하는 병경과 같은 대규모의 치병의례에서부터 가정주부가 진행하는 소규모의 비손이나 푸닥거리에 이르기까지 치병과 관련된 가정의례의 사례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셋째, 치병의례와 더불어 사자를 저승으로 안착시키는 천도의례도 가정신앙의 범위에 해당된다. 천도의례의 속성 상 숙달된 의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속(천도굿)이나 맹인독경(시왕경)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죽음으로 인해 빚어진 가정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본래적인 가정의 질서를 되찾으려는 가정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Ⅵ. 결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민간신앙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화, 현대화, 도시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상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모하였고,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풍토에서 서구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종교(world religion)가 자유롭게 전파되면서 신앙의 기반이 급격하게 바뀌어 갔다. 가정신앙을 포함한 기존의 민간신앙은 이러한 사회적·종교적 환경 속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신앙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종교적인 풍토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농어촌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기반을 둔 비제도적인 신앙체계라는 굴레에 점점 갇히게 될 뿐이었다.

---

14) 이필영, 「해물리기와 잔밥먹이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가정신앙』 하, 민속원, 2005, 351-390쪽. 참조.

현대의 사회적·종교적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가정신앙에 대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가옥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가정신앙의 골간이기도 한 가신의 관념과 실천이 예전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전국 주택의 50%를 상회하고 농어촌의 주택도 도시형 양옥 주택으로 개량됨으로써 대청마루, 안방, 부엌, 뜰(뒤곁), 문, 측간 등으로 구성된 가옥의 구조가 유지되기 곤란했고, 그에 따라 가신도 점차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가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성황, 조상, 삼신, 조왕, 터주, 업 등의 가정신앙의 잔존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도시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가정신앙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 가령, 현대식 아파트 주방에 조왕의 신체가 유지되고 그에 대한 소박한 신앙이 지속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도시의 민속학 내지 도시의 가정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요청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도시화와 분업화의 과정에서 생애의 중요한 순간을 집에서 맞이하지 않는 생활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태어남과 죽음과 같은 인생의 주요한 고비를 집안이 아닌 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세상을 맞이하고 병원 장례식장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삶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삼신이나 조상신보다는 산부인과 의사와 장의사에 의존하게 되었다. 여성에서 모성으로의 통과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생자에서 망자로의 전이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생의 대사라 할 수 있는 혼례 역시 가정을 떠난 지 오래다. 개인의 일생의례가 가정 안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가정신앙도 위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달리 보면 비록 신앙적인 측면이 약화되긴 했지만 사회 곳곳으로 확대된 집밖의 가정신앙에 대한 세심한 주목이 학계에 요청되고 있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가정신앙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몸살을 앓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세계종교의 전래와 선교를 통해 다시한번 변화를 실감해야 했다. 종교인구의 분포가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으로 배

치되면서[15] 전통적인 가정의 종교문화가 제도종교의 그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교회나 사원에서의 종교생활과 가정단위에서의 종교적인 삶이 괴리될 수 없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제도종교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속의 가정신앙은 비문명, 비도덕, 비합리로 괄시받으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를 포함한 모든 문화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급격하거나 점진적이거나 혼합(syncretism)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제아무리 배타적이고 엄격한 종교라 하더라도 그 종교에는 공식적인 모델(official model)과 민속적인 모델(popular model)이 병존할 수밖에 없음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속 이슬람이니 기독교 민속이니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여러 제도종교 앞에서 위축된 가정신앙의 변모를 목도하면서도 새로이 생성되고 변형되는 종교문화의 혼합을 예민하게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5)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국민의 53%가 종교인이고, 그 중에 98%의 종교인이 불교(43%), 개신교(34.5%), 가톨릭(20.6%)을 신봉하고 있다. 『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사』 제1권(인구편), 통계청, 2006. 참조.

Abstract

Rethinking on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Choi, Jong-seong

This study deals with the definition, gods, and rituals of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First of all, to understand the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we need to rethink what familial folk religion (*gajeong sinang*) is.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is found not only inside house but also outside house. Accordingl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wo phases of Korean familial folk religion: indoor familial folk religion and outdoor familial folk religion.

Traditionally, household gods are the nucleus of indoor familial folk religion. The household gods take locations in their own places and function as tutelaries for family. Through the myths of the gods and rituals for the gods, we can find the space sense of house and religious attitudes toward household tranquility.

Outdoor familial folk religion is connected with the communal folk religion in the mountainous or riverside village. Indoor familial folk rituals are for household gods, whereas outdoor familial rituals are for mountain gods, dragon gods, and wind gods.

Key words: familial folk religion, household gods, mountain gods, dragon gods, wind gods